



주요 은행들이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뉴시스

불장 속 예금사수 총력 은행, 금리인상 방어전

불장 여파에 증시로 자금 쏠려
5대 은행 예금 금리 0.25%p ↑
케이뱅크 ‘코드K’ 연 2.75%
신한은행 최고 연 20% 특판도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로 연말 연초에 예·적금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 금리는(12개월만기) 기본금리 연 2.05~2.75%,로 집계됐다.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2.46~2.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25%포인트(p) 올랐다.

5대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른 이유는 우선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 금리의 기본금리인 은행채(무보증 AAA) 금리는 ▲9월 1일 2.515% ▲10월 1일 2.587% ▲11월 3일 2.715%로 상승했다.

연말 연초에 예금 만기가 몰려 있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컸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4분기 만기 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이 크다”며 “수신 경쟁이 심화하면서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연말 자금이동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으로 연 2.75%의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코드K 정기예금 1년만기 상품의 기본금리를 연 2.5%에서 연 2.55%로 올린 바 있다. 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과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예금은 연 2.70%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상품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오락실 적금’을 판매했다. 매주 최대 10만원씩 8주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게임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것이 특징이다. 총 30만화 한도였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게임 성적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IBK 랜덤 게임 적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은 100일로, 최고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총 적립한도는 500만원이다.

이 밖에 전북은행의 12개월 만기 ‘JB슈퍼씨드 적금’의 최고금리는 13%, 하나은행의 ‘오늘부터, 하나 적금’은 최고 7.7%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 적금’도 최고금리가 연 7%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불장 여파에 자금 이탈 속도가 더 빨라져 고민이 크다”며 “요구불예금과 같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다양한 특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금융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확대적용

그룹 전 계열사 공동 활용

우리금융그룹은 AX(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완료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혁신을 단행했다. 이번에 구축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으며,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활용한다.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AI 핵심전략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기술 기반이다. ‘BaaS서비스형 बैं킹’과 ‘우리WON지갑

(우리WON뱅크 디지털 지갑)’ 등 외부 제휴를 확대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 중이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금융권의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다. ISMS-P와 ISO/IEC 27001 등 국내외 핵심 보안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감독기관의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개발·배포(CI/CD) 체계를 도입했다.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트,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서비스 품질 검증과 보안 심사 절차를 자동화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올댓’ 접는 신한카드… 수익성 중심 체질개선

신한카드, 커머스 전략 선회
‘누구나 이용’서 ‘회원 중심’
오픈몰 접고 자체 앱 쇼핑 강화

신한카드가 자체 쇼핑몰인 ‘올댓’ 서비스 운영을 4년 만에 종료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용 효율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자사 오픈 개방형 쇼핑몰인 ‘올댓’ 플랫폼 서비스를 이달부로 종료한다. 이후부터는 신한솔(SOL) 페이애플리케이션 내 쇼핑 부문을 따로 개설해 ‘인앱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댓은 신한카드가 지난 2022년 자사 쇼핑사이트인 ‘올댓쇼핑’을 리뉴얼한 오픈형 쇼핑 플랫폼이다. 가구, 가전, 이사 등 생활용품과 더불어 웨딩 용품, 여행 패키지, 골프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 쇼핑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올댓 서비스는 카드사 쇼핑 플랫폼 가운데 유일하게 오픈형 개방 쇼핑몰 형태로 운영돼 왔다. 신한카드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신



신한카드 ‘올댓 앱’ 종료 관련 안내 메시지.

한카드 외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시중은행 계좌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그런 올댓 서비스가 4년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독립형 오픈 쇼핑몰에서 신한카드 금융 앱에 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인앱몰’ 형태로 전환된다. 누구나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신한카드 발급 회원만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종료가 비용 효율성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신한카드 올댓 플랫폼은 그간

“대출 막혀도 산다”… 규제 비웃는 수도권 분양시장

반포 래미안 특공 86대 1 경쟁률
분당 26억·광명 15억 완판 행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들쭉이면서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86대 1로 집계됐다. 276세대 모집에 총 2만 3861명이 접수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동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워낙 대단지다보니 일반분양물량도 506세대에 달했다. 대출규제로 2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가능한 청약이지만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9825명, 869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최고 가격으로 기존 최고가인 강남구 ‘청담르엘’(7209만원)보다 1275만원이나 높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 3100만원, 84㎡ 27억4900만원이다.

경기도 분당에서도 국민평형 26억원대의 최고가에 특별공급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신축 현장.

/안상미 기자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로 3단지를 리모델링한 ‘더샵 분당타이에르원’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16대 1로 집계됐다. 55세대 모집에 900명이 접수했다.

더샵분당타이에르원은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단지다. 총 873가구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102가구(전용면적 66~84㎡)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66㎡ 19억7400만원, 74㎡ 23억 1800만원, 84㎡ 26억8400만원이다.

경기도 광명에서도 국민평형이 15억원 웃도는 분양가가 무리없이 소화됐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12R구역을 재개발하는 ‘철산역자이’는 완판에 성공했다. 전용84㎡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15억7600만원으로 광명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2층의 저층 분양가였다. 지난해 1월에 분양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SK뷰’의 전용84㎡의 최고 분양가

수익성이 신통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올댓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고 있던 올댓컬처 공연 예매 서비스가 종료됐다. 4월에는 골프장 예약 서비스 및 티스캐너 이용 고객 대상 할인권을 제공하던 올댓골프 서비스가 폐지됐다. 올해 초를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제휴도 줄줄이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는 LF몰, 교보문고와의 제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어 6월에는 예스24, 쇼핑엔터, 우체국쇼핑, 신세계몰, G마켓, 알라딘, 홈플러스, 옥션, 롯데홈쇼핑, 11번가 등과의 제휴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올댓 플랫폼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제휴몰 등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정리해 단순화할 예정”이라며 “신한카드 이용고객 대상 쇼핑템 추천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방식처럼 타사 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가 12억3500만원임을 감안하면 3억원이 넘게 올랐다.

철산역자이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총 204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다.

다음주 청약을 진행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의 분양가는 더 올랐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16억4100만원이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11구역으로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다.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9㎡ 31가구 ▲51㎡ 103가구 ▲59㎡ 494가구 ▲74㎡ 22가구 ▲84㎡ 2가구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11일 밝혔다. 다만 공항, 공단 지역, 시장, 기관 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수능시험 날, 은행 한시간 늦게 연다

은행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날 영업시간을 한 시간씩 늦추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 서 오전 10시~오후 5시로 변경한다고